



라틴아메리카와 미국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의 권력 이양, 세계적인 금융 불안, 미국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관계는 현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불편한 관계는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제국으로 발돋움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때로는 정치적 음모와 쿠데타로, 때로는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통해서 라틴아메리카에 지속적으로 간섭해왔다. 이러한 간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저항과 주권 되찾기가 1959년 쿠바혁명이며, 현재의 이른바 ‘좌파 물결’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다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지난 세기처럼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으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을 조성하려는 라틴아메리카 내부의 동력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라틴아메리카에 미친 파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 게재된 글 가운데, 로렌 넬슨의 ‘오바마와 라틴아메리카’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단결¹⁾

노엄 촘스키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동력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곳 카라카스에서 연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좌파 대통령이 선출되어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자



노엄 촘스키

원을 국내외의 부자와 특권층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발전의 선행조건으로 너무나도 절실한 지역통합과 독립과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먼저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대륙 전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제는 “좌파 물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 내에서, 가장 최근에는 파라과이에서, 그리고 지금 형성과정에 있는 이 지역의 각종 제도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는 남미은행(Banco del Sur)이 있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가 1년 전 여기 카라카스에서 이 선도적인 제도를 지지한 바 있습니

1) 이 글은 노엄 촘스키가 2008년 9월 24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제7차 사회정상회담(Social Summit)’에 보낸 비디오 연설문이다. 원제는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Unity”이며, 필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하였다. 출처는 <http://www.zmag.org/znet/viewArticle/18958>

다. 그리고 ALBA, 즉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를 위한 볼리바르적인 대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에 약속한 것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서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LBA는 미국이 후원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의 대안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비록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소위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 심지어 무역과도 제한된 관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나라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분명히 협정도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용어는 ‘투자자-권리 협정’일 것인데,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좇는 다국적 기업들과 은행들과 강력한 국가들이 입안해서, 대중의 참여와 인식 없이 대부분 비밀리에 체결된 것들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협정들에 대한 ‘일괄승인 권한’, 본질적으로 크레믈린식 권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성되고 있는 또 다른 지역 조직은 남미국가연합(UNASUR)입니다.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이 대륙적인 블록은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 남아메리카 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곳은 남미국가연합 의회를 위한 적절한 장소입니다. 코차밤바는 2000년 물전쟁 이전에는 국제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코차밤바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상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용감하고 성공적인 투쟁으로 자유와 정의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훌륭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파가 훨씬 더 주목할 만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개된 사건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볼리비아는 정부구성에서나 아

주 중요한 문제와 민중의 관심사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 수립에서 대규모 민중이 주도하고 조직화된 국민 대다수가 의미 있게 참여함으로써, 아메리카에서 진정한 민주화로 가는 인상적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한껏 부풀려진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다른 곳 어디에서도, “북의 거인”이라는 미국에서도 좀처럼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똑같은 일이 정확히 15년 전 아이티에서 발생했는데, 이 나라는 빈곤에서 볼리비아를 능가하는 유일한 아메리카 국가이며,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유럽 부의 원천이었고 나중에는 미국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1990년에 아이티에서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자원을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전 아이티 대통령의 모습에 담긴 달력을 들여보이며 그의 복귀를 외치는 지지자

독점하고 있으며 예전에 세계은행 관리였던 미국 지원 후보가 쉽게 이기리라고 서구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빈민가에서 조직되고 있던 광범위한 민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다. 결국 그들은 민중주의적인 성직자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Jean-Bertrand Aristide)를 권좌에 올려놓았습니다. 워싱턴은 즉시 두렵고 증오스러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민주주의의 놀라운 승리를 뒤집어엮었고,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정권이 권좌를 차지하는 데는 단지 몇 달이 걸렸을 뿐입니다. 워싱턴은 결국 선거로 선출된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복귀를 용인하였지만, 여기에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다

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한 신자유주의 규칙은 늘 그랬던 것처럼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아이티, 프랑스, 미국의 전통적인 고문자들이 합세하여 새로운 테러정권을 내세우고, 민중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있는데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다시 권좌에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투쟁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친숙하며, 볼리비아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곳은 오늘날 민중민주주의와 미국의 지지를 받는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가장 격렬하게 그리고 위협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대입니다. 요즘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정복 이전의 볼리비아는 부유하고 세련되고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 하나, 하나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풍경을 만들어내면서, “포장도로와 운하와 넓고 조화로운 도시들과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기이하고 생태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인공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볼리비아의 거대한 광산자원은 스페인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북부 유럽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위시한 그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후, 고통스러운 제국주의적 만행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건재한 탐욕스런 국내 엘리트들의 가혹한 묵인 하에 뒤를 이었습니다.

60년 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볼리비아와 페루를 미국의 아메리카 지배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워싱턴은 두 나라의 민중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워싱턴은 폭력이라는 전형적인 기술에 의존하여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정권을 앉혔는데, 그 정권의 범죄행위는 1980년대 레이건의 살인적인 테러전쟁 기간

동안에 과테말라 고지대에서 벌어진 사실상의 인종말살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잔학행위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전쟁은 조지 부시가 2001년 9월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재선언’한 것입니다. ‘선언’이란 레이건의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 그 잔혹한 결과를 떠올릴 때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아이젠하워 정권은 과테말라의 민주주의와 독자적인 발전을 폭력으로 굴복시켰습니다. 볼리비아는 주석 수출품의 가공처리를 위해서 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똑같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학자인 스티븐 존스(Stephen Zunes)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950년대 초] 볼리비아가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정부는 이 나라의 부족한 자본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산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과 외채 지불에 쓰도록 강요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볼리비아에 강요한 경제정책은 30년 후에 신자유주의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이 대륙에 부과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전조였습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요된 곳은 보통 파괴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근본주의의 희생국에 부유한 나라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금융자유화의 재앙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초래되었으며, 결국 붕괴하는 금융제도를 구제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국가가 대규모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현대 국가자본주의의 일상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규모는 전례 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15년 전에 유명한 국제경제학자 두 사람(Ruigrok and von Tulder)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



워싱턴DC에서 열린 IMF반대 집회

습니다. 즉,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중에서 적어도 20개 기업은 모국 정부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나머지 상당수는 정부에 “그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 개입이 “지난 2세기 동안 예외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례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IMF가 약소국들에게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오늘날 미국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대규모 구제금융 간의 놀라운 유사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F의 미국 측 이사는 마피아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 기관을 “신용 공동체의 행동대장”으로 묘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서구가 주도하는 국제경제의 규칙 하

에 제3세계 독재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이상,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는 아주 다르게 작동합니다. 채무국이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IMF가 채권국과 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하려고 개입합니다. 부채는 채무국의 가난한 대중에게 이전되는데, 대중은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 돈에서 사실상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입니다. 부유국의 납세자들 역시 돈을 빌려주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금으로 IMF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경제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력의 분배 방식을 반영할 뿐입니다.

국제경제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게 시장원리를 받아들이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지만, 그들 자신은 시장의 파괴행위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유용한 이러한 행동은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계를 부유한 사회와 가난한 사회, 제1세계와 제3세계로 나누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스스로 시장광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고안한 이러한 훌륭한 반 시장체제는 아주 불길한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익히 잘 알려진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외부성'(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금융제도의 경우 특히 그러합니다. 그 제도의 임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제대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그 제도 자체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도 반드시 상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규칙 하에서는 금융 행위가 금융위기로 이어졌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위험을 저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MF의 해결책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IMF는 위기의 비용을 대중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대중은 이러한 위험한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제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 비용이 약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농민들이 잔인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대중도 이러한 결과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발언권도 없습니다.

근대 국가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비용과 위험은 사회화되고, 반면에 이익은 사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는 금융제도를 훨씬 넘어서는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숙한 선진경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혁신, 기초연구와 개발, 구매자가 없을 때의 매수, 직접구제,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국가의 여러 부문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제국주의적이고 신식민지적인 헤게모니의 국내 판으로, WTO 규정과 잘못된 이름 붙여진 ‘자유무역협정’에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유화는 경제를 훨씬 넘어서는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국제경제학자들이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의 “사실상의 의회”라고 부르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은 정부의 프로그램들을 가까이에서 감시할 수 있고, 이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경우, 즉 집중된 사적 권력보다 민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반대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유출, 통화 공격, 기타 금융자유화가 제공하는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 만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자본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통화를 규제한 이유입니다. 대공황과 전쟁으로 반파시스트적인 저항에서부터 노동계급 조직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띤,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강력한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력들은 사회민주적인 정책들의 허용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어느 정도는 대중의 의지에 대응하는 정부의 활동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즉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협상단의 일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Jonh Maynard Keynes)는 정부가 자본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수립한 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난 후 신자유주의 단계에 있는 지금, 미국의 재무부는 자본의 유동성을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건강, 교육, 적절한 고용, 안전처럼 소위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가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 “터무니없는”, 단순한 “신화들”이라면서 폐기해버린 여타 권리 이상 가는 기본권으로 말입니다.

초기에는 대중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리 아이헨그린(Barry Eichengreen)은 국제통화체제에 관한 권위 있는 역사서에서 그 이유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9세기에는 아직 정부들이 “보통선거와 노동조합주의와 의회에 입각한 노동당들의 등장에 의해서 정치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의회’가 부과하는 심각한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이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기와 반파시스트 전쟁기에 일반 대중이 급진화되면서, 그러한 사치는 이제 더 이상 사적인

권력과 부자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시장의 압력과 절연할 수 있도록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을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으로 대체시켰습니다.” 1970년대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해체로 민주주의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주변부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은 특히 미국처럼 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홍보산업이 선거 작태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부유한 나라들 자체 내에서 그리고 후진국에서는 훨씬 더 잔인하게 군사적인 테러와 경제적인 교살의 주요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전도유망한 노력이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비아에서, 또 그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정의,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당연히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전통적인 지배자들의 무자비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5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내가 방금 언급한 경우 외에도 너무 많고 익숙해서 떠올리기 힘든 끔찍한 경우에서 보듯이 외부세력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랜 부끄러운 역사로부터의 의미심장한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산티아고에서 있었던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은 바로 그러한 이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남아메리카의 대통령들은 모랄레스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정부는 전통적인 지배계급, 즉 볼리비아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격렬히 반대하고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럽적인 특권 엘



산티아고에 모인 남아메리카의 정상들

리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에 모인 남아메리카 지도자들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비준 받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입헌정부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최근의 국민투표에서 그가 거둔 압도적인 승리를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모랄레스는 “남아메리카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역 국가들이 미국 없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남미국가연합의 지지에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가 보도를 거부했다는 사실 때문에 볼리비아 민주주의에 대한 남미국가연합의 지지가 갖는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편집장들과 특파원들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신사들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패턴입니다. 여러 가지 예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면, 2006년 12월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여 통합을 향한 전진을 요구한 남아메리카 지도자들의 코차밤바 선언은 전통적인 미국의 지배국 내에 있는 프리 프레스(Free Press, 역주: 미국의 미디어 감시 단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들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정치가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미주가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아메리카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은 이 대륙과 그 주민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건들이 미국의 미주 지배뿐 아니라 세계 지배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통제는 미국 대외정책의 제1목표였으며, 그 기원은 공화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조지 워싱턴의 말대로 “신생 제국”으로 건국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중 제일가는 자유주의자 토마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새로 해방된 식민지가 원주민들을 “숲속의 짐승들과 함께 스톤 산맥으로” 몰아낼 것이며, 그리하여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인디언이나 (노예제가 결국 폐지된 후에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감으로써) 흑인과 같은 “오점이나 뒤섞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더군다나 이 나라는 “남북아메리카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 살게 될 사람들의 등지”가 되어 인디언뿐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라틴계 주민까지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라틴아메리카 통제는 여전히 주요 정책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원과 시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데올로기적이고 지정학적인 좀더 광범위한 이유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밖의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성공적인 질서 수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위원회가 칠레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역사가 데이비드 슈미츠(David Schmitz)는 아옌데가 “미국 냉전정책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적 토대에 도전함으로써 미국의 전 세계적 이해관계를 위협했다. 칠레의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 다른 나라에게 모델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이 바로 미국의 우려와 반대를 야기한 위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독재테러 정권의 수립과 유지에 사실상 직접 참여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칠레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성공은 남유럽에까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칠레의 무리들이 마드리드와 로마로 옮겨간다는 뜻이 아니라, 칠레의 성공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중운동이 남유럽에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류 학자들조차도 워싱턴은 민주주의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민주주의를 지지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모든 행정부에 걸쳐 변함없이 계속되어온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이러한 일반화된 우려는 ‘도미노 이론’, 때로는 좀 더 정확하게 ‘선례(先例)의 위협’이라 부르는 것의 표현 양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복종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는 것조차도 응징이 필요한 위협,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라오스 북부 외딴 공동체들의 농민조직화, 그레나다의 어민협동조합, 세계 전역의 기타 등등의 일들까지 말입니다. 성공적인 독자적 발전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 최고 정책 입안자들의 용어로는,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미국의 우려가 군사개입과 테러리즘과 경제 전쟁에 줄곧 동기를 부여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냉전의 지배적인 특징입니다. 세계 통제의 하위 파트너(역주: 구 소련)가 훨씬 좁은 동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중봉기를 진압할 때 서구의 위협을 들먹이며 호소했던 것처럼, 초강대국의 대결은 정기적으로 구실들을 제공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기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그 원천은 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을 향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통합의 한 가지 차원은 지역적인 것으로, 내가 언급한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막 중앙아메리카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레이건의 테러전쟁으로 철저히 짓밟혀서 주로 사이드라인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온두라스의 최근 상황이 특히 중요한데, 이 나라는 고전적인 ‘바나나 공화국’이며, 1980년대에 워싱턴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일으킨 테러전쟁들의 주요 근거지입니다. 주 온두라스 미국 대사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는 그 시대에 지도적인 테러리스트 지휘관 중 한 명이었고, 그에 따라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반 테러리스트 활동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셀라야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가 “우리를 종복으로 만들 수 없으며”, 워싱턴에게 자국 국민을 모욕할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카리브 지역의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동맹)에 참여하고, 7월에는 ALBA에도 가담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유대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수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이러한 종류의 지역 통합은 독립의 결정적인 선행조건인데, 그러한 통합은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하나씩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워싱턴은 그러한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언론매체와 엘리트들의 논평도 통합을 무시하거나 주기적으로 왜곡합니다.

통합의 두 번째 형태는 전 지구적인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관여하고 있는 중국 등과 함께 남남 관계를 확립하고 시장과 투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전쟁부 장관이었던 헨리 스티imson(Henry Stimson)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작은 지역”이라고 부른 지역을 통제하는 워싱턴의 능력을 다시금 약화시켰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지역체제들은 해체되어야 하며, 반면에 우리 지역체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 모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통합의 형태는 국내적인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는 부와 권력의 극심한 집중과, 특권적인 엘리트들의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세기 전에 한국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는 산업발전소입니다. 동아시아 전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아메리카와 대조를 이루는 게 인상적입니다. 라틴아메리카가 훨씬 더 우수한 자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온 반면, 동아시아는 대부분 이를 무시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엘리트들은 자신들을 국가의 운명과 분리했지만, 동아시아의 엘리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니다. 한 가지 척도는 자본 유출입니다. 즉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본 유출이 어마어마한 외채 규모와 상응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형 구형이 가능할 정도로 자본 유출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동아시아는 부자 나라들이 현재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 발전양식들을 채택한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지들에게 강제되어 발전을 가로 막으면서 주로 제3세계를 창출한 시장원리들을 고수했습니다.

더구나 동아시아식 발전이 라틴아메리카나 여타 지역이 열망해야 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제도를 민중이 통제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 문제, 또한 일상의 모든 측면에 나타나는 계서제와 지배의 구조를 뒤집어엎는 문제는 이제 겨우 지평선에 출현해서 장차 엄청나고 필수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라틴아메리카 내에 존재하는 커다란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은 많은 내부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불완전하게나마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은 또다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작은 지역”의 전통적인 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권력과 특권 부문들의 심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투쟁은 지금 당장은 볼리비아에서 특히 격렬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상 미주 전역에 걸쳐 이러저러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문제들은 전 지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부적인 투쟁과 병행하여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연대에 의해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남아메리카를 필두로 해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사회포럼은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진정한 세계화 시대를 예고하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것의 맹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투자자와 기타 집중된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이해를 위한 국제적인 통합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극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는데, 그것은 흥미진진한 기회이며, 어려운 도전이며, 역사적으로 비중 있는 책임입니다.□

[김윤경 옮김]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창시한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1960년대 베트남전쟁 때부터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벌이고 있다.
